

---

# 학교 안에서

작성 오세호(안산강서고등학교 교사)  
성지현(김포교육지원청)  
이성균(인천고등학교 교사)  
윤이정(안양예술고등학교 교사)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http://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계절1318문고 129  
김혜정 지음

---

■ 주 제 어 #학교 #인간관계 #테러

■ 분 류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 소설

## 도서 소개

학교에 폭탄 테러가 상상만 해도 너무 아찔합니다.  
다음은 현진고등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범의 메시지입니다.

현진고 교문 주위에 폭탄 설치함.  
작동 버튼 누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누구든 교문을 들어오거나 나가면 터짐!

협박범의 저 말은 사실일까요? 정말 폭탄이 설치되긴 한 걸까요? 협박범의 말을 안 들으면 폭탄은 진짜 터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학교 안에 갇힌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 가족들은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그건 그렇고 협박범은 과연 누구일까요? 협박범은 학교에 무슨 원한이 있는 걸까요?

이 소설은 ‘한영주, 차선빈, 이한아, 서지우, 이주리, 김아인, 박재준, 위진성’이라는 등장인물들이 ‘학교’라는 공간적 배경 속에서 ‘폭탄 테러’라는 사건을 매개로 ‘학교 안’ 이야기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학교에 관한 8인의 고백이자, 나의 고백이다.”

도대체 이들 8명은 학교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저 8명 중 누구와 가장 비슷할까요? 누가 나의 가슴에 남는 인물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와중에 혼하디혼한 학교였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학교 안 사람들을 돌이켜 보며 이 소설을 읽기 바랍니다.

## 학습 목표

1. 소설 속 등장인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2. 소설에 활용된 공간과 소재 등의 기능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하면서 자신의 삶과 관련지을 수 있다.



##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전	학교 관찰하기	1차시
독서 중	인물 성격과 관계 파악하기	2차시
	소재의 기능과 의미 분석	3차시
	인물의 특성 파악하기	4차시
	기사문 작성하기	5차시
독서 후	하브루타 토론 연습하기	6차시
	하브루타 토론 실습하기	7~8차시
	학교의 기능 분석하기와 미래학교	9~10차시

### 1차시

#### 학교 관찰하기

##### 1. 4인 1조 모둠을 구성하고 다음 지시에 따라 게임을 진행합니다.(10분 진행)

- 뽑기를 통해 순서를 정한다.
- 첫 번째 사람이 “학교에 가면 00도 있고”라고 말한다.
- 뒤이어 순서대로 “학교에 가면 00도 있고, 00도 있고~”라며 각 발언자는 앞서 사람이 말한 내용에 이어 붙여 말한다.
- 앞서 사람이 말한 것을 중복하여 외치거나 3초 이내 답을 하지 못하면 게임에서 패한다.
- 학교에 가면 있는 것들은 사물, 자연, 사람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

2. 1번 게임활동을 통해 관찰한 학교는 어떤 모습인가요? 1번 활동에서 언급된 '학교에 있는 00'을 조합하여 학교 풍경화를 그려 봅시다. 그리고 항상 학교에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존재 중에 게임을 통해 다시 떠올리게 된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그 대상에게 느낀 감정을 단어로 나열하고 그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문장으로 작성해 봅시다.

**2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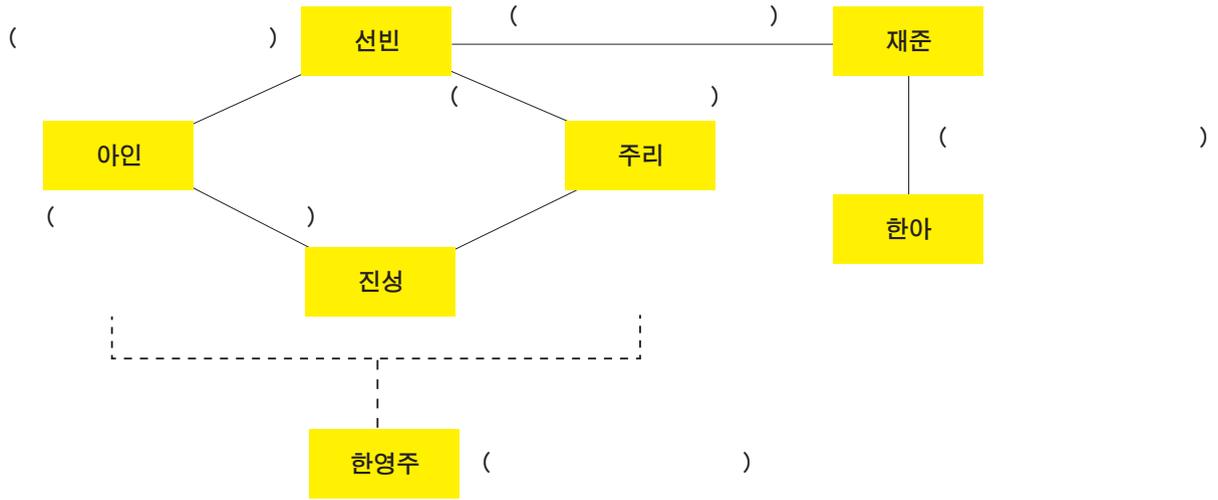
**인물 성격과 관계 파악하기**

1. <프롤로그> 부분을 읽고, '학교지킴이 SNS'의 문제점을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해 봅시다.

관점	문제점

**선생님께** 운영 주체, 이용 누리꾼, 시민들의 반응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2. 각 인물 간 관계를 정리해 써 봅시다.



3. 107쪽까지 읽고, 각 인물의 상황을 탐구해 봅시다.

인물	학교에 갇힌 이유	범인으로 의심 받을 상황
한영주		
주리		
아인		
선빈		
재준		
진성		
한아		
지우		

### 3차시

### 소재의 기능과 의미 분석

1) '전화, 핸드폰, 인터넷-SNS'의 소설 속 기능에 대해 찾아 봅시다.

[ 보기 ]

- 현진고등학교 주변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누구라도 교문을 나서는 즉시 터뜨리겠다는 글이 경찰청 SNS에 몇 차례 올라왔다는 거다.(24쪽)
- “오오, 대박! 우리 학교 검색어 1위인데?”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던 재준은 핸드폰을 주면 아이들에게 보여줬다. (27쪽)
- 선빈과 재준은 중앙에 있는 ~선생의 책상에 나란히 앉아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했고, 주리와 아인은 공지 사항이 적힌 교무실 오른쪽 칠판 아래 소파에 기대어 앉아 역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했으며 ~ (32쪽)
- “마지막 사용 기록 IP가 현진고 서버예요” (41쪽)
- 교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 (44쪽)
- 주리가 핸드폰을 꺼내 수민에게 답이 왔는지 확인했다. 서지우를 아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직 읽지 않았다. (61쪽)
- 엄마의 초조함이 전화기를 통해 다 전해졌다(69쪽)
- 그때 경찰은 SNS에 글을 올린 범인을 추적하는 중이라고 했다. (84쪽)

1) '전화, 핸드폰, 인터넷-SNS'의 소설 속 기능에 대해 찾아 봅시다.

통신 기기 및 기술	역할
교무실 전화 (20~21)	테러 협박 사실을 알려주는 도구, - - -
핸드폰	- -
인터넷( SNS 포함 )	- -

2) 통신 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찾아 정리해서 발표해 봅시다.

순기능	역기능

**4차시**

**인물의 특성 파악하기**

1. ㉠~㉣에 인물의 이름을 적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학교  
안  
에서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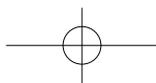
김혜정 장편소설

시모계절

2. 이 작품을 극(드라마, 영화)으로 제작한다고 할 때, 기존 연예인 중 각 인물을 캐스팅하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인물		배역	선정 이유
교사	한영주		
	이미림		
	교감		
학생	주리		
	김아인		
	차선빈		
	박재준		
	위진성		
	이한아		
	서지우		
경찰	이동일 경사		

**선생님께** 학생들이 배우 선정 이유로 나이, 성격, 외모, 말투, 인물의 이미지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1. 아래 예시문에서 기사문의 형식을 찾아보고, 신문반인 '선빈'과 '재준'이 자신들이 겪은 소설 속 상황을 학교 신문 기사로 작성한다고 가정하고 기사문을 작성해 봅시다.

#### 기사문의 형식

**표제** 큰 제목(전체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제목)

**부제** 작은 제목(표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제목)

**전문** 사건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문장

**본문**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자세하게 서술

[ 보기 ]

## 출판사들이 발굴한 신인 작가들 책 읽어볼까 공모전 당선작 잇달아 출간

출판사들이 공모전을 열어 직접 발굴한 신인들의 소설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

출판사 넥서스는 최근 제1회 넥서스 경장편 작가상 대상 수상작인 권여름의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를 출간했다. 단식원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살을 빼야 하는 절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요즘 시대에 몸이 어떤 의미인지 고찰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받았다. 중학교 국어 교사인 권 작가는 이 소설로 등단한 신인이다.



사계절출판사는 지난해 제1회 박지리문학상을 제정해 공모전을 열었다. 일곱 권의 책을 쓰고 2016년 31세로 요절한 박지리 작가를 기리기 위한 상이다. 그 첫 번째 당선작인 《단명소녀 투쟁기》가 지난 7월 단행본으로 나왔다. 신인 작가 현호정(28)의 작품이다. 출판사 아작의 제1회 문윤성 SF 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슈뢰딩거의 아이들》도 같은 달 출간됐다. 1965년 한국 최초의 본격 SF 장편소설 《완전 사회》를 발표한 고(故) 문윤성 작가를 기리는 문학상이다. 수상작을 쓴 최의택은 2019년 제21회 민들레문학상 대상을 받았지만 책 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판사 안전가옥의 '안전가옥 스토리 공모 2019' 코지 미스터리(가벼운 분위기의 범죄·추리·미스터리물) 부문 대상 수상작인 《세련되게 해결해드립니다, 백조 세탁소》, 출판사 황금가지의 제 3·4회 테이스티 문학상 작품집인 《사건은 식후에 벌어진다》 등도 최근에 나왔다.

한국경제 2021.9.1. 임00기자

00일보    년    월    일    요일

## 1. 다음 글을 짚궁과 번갈아 가며 한 번씩 읽고 난 후, 질문에 대해 짚궁과 답해 봅시다.

두 친구가 숲속을 걸어가고 있다. 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정 변치 말자고 약속한다. 그런데 둘 앞에 갑자기 꿈이 나타난다. 키가 큰 친구는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키가 작은 친구는 ㉠미처 도망치지 못한다. 꿈이 달려들었고, 키가 작은 친구는 죽은 척하고 바닥에 쓰러진다. 꿈이 그에게 다가와 툭툭 쳐 보고 냄새를 맡아 보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꿈은 죽은 고기는 먹지 않기에 그냥 가 버린다. 그리고 키가 큰 친구가 내려와 묻는다. 꿈이 무슨 말을 했느냐고, 죽은 척했던 친구는 말한다. ㉢ 그리고 둘은 헤어진다.  
[본문 137쪽]

질문	나의 답변	짚의 답변
1. '우정'이란 무슨 뜻인가? 비슷한 말로는 무엇이 있을까?		
2. 왜 ㉠의 단어를 써서 표현했을까?		
3. ㉡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4. 만약 당신이 키가 큰 친구라면 꿈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5. 만약 당신이 키가 작은 친구라면 꿈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6.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7. 두 친구는 헤어지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 1. 다음 글을 읽어 봅시다.

‘하브루타 토론’이란 유대인들의 탈무드 학습법 중 하나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브루타 토론의 절차

- ① 짝공과 번갈아 가며 본문을 한 번씩 소리 내어 읽는다.
- ② 질문을 만든다.
- ③ 한 학생이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 ④ 의견을 들은 짝공이 새로운 내용을 덧붙인다.
- ⑤ 그 새로운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수용하면서 토론의 과정을 거친다.

학생들은 질문에 대해 답하고, 토론을 하면서 점점 질문에 대해 깊이 접근할 뿐만 아니라 더욱 풍부한 사례를 얻게 됩니다. 하브루타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하브루타 토론의 본질적인 목표는 질문을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 좋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

- ① 단어의 뜻을 묻는다.
- ② 문장의 표현에 대해 묻는다.
- ③ 느낌을 묻는다.
- ④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묻는다.
- ⑤ 비교해서 묻는다.
- ⑥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다.
- ⑦ 상대방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묻는다.
- ⑧ 가정하여 묻는다.
- ⑨ 결론적이고, 종합적인 것을 묻는다.

‘하브루타 토론’은 공부를 위한 대화로 협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승패를 결정하는 토론이 아니라 사실을 학생들은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타인의 생각에 대해 반박할 때는 논리적인 말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실제 '하브루타 토론' 수업 장면

## 2. 다음 글을 읽고, 하브루타 토론을 해 봅시다.

서진주는 1학년 때 같은 반인 유성진이란 남학생과 사귀었다. 5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이었다. 2학년이 되며 둘은 다른 반이 되었고, 둘은 몇 번 다투다가 결국 헤어졌다. 그런데 2학년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동영상 하나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얼굴과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섹스 동영상이었다. 동영상 이름은 '필섹'으로 진주의 이름을 딴 거였다. 남자아이들 사이에 돌아다니던 동영상이 여자아이들에게까지 퍼졌다. 진주의 친구는 결국 진주를 불러 말을 했다. "이게, 너래." 그제야 진주는 왜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자신을 보며 킬킬대며 웃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진주는 부들부들 떨며 유성진을 찾아갔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성진은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네가 몰래 찍은 거야?" 진주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성진에게 물었다. "아니. 내가 그걸 왜 찍었겠어?" "그런데 왜 이게 우리라며 돌아다니는 거야?" "나야 모르지." 성진은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했다. 진주는 구역질을 참으며 동영상을 보고 또 봤다. 영상 속에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자세히 봐도 이게 자신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만약 성진이 몰래 찍은 거라면? 그런데 동영상 속 인물은 두 명인데, 문제가 되는 이는 진주 혼자였다.

진주는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기분이 들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고민 끝에 엄마와 아빠에게 말을 했다. 이건 분명한 폭력이다.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조사 결과 처음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린 건 성진이 맞았다. 하지만 성진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이었다. 단톡방에서 '이게 서진주임?', '대박.', '장난 아니네.'라는 말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성진은 동영상을 올렸을 뿐, 서진주가 맞다 아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성진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다. 경찰에서도 성진에게 처벌을 내릴 수가 없다고 했다. 진주와 부모는 그러면 학교에서라도 성진과 그 동영상에 대한 루머를 퍼트린 아이들에 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이들 단톡방까지 학교가 어떻게 관여를 해요. 그리고 애초에 둘이 사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학교가 학생들 연애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학교는 공식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힐 거라고, 기다리라고만 했다. 전학을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진주는 자주 결석했다. 학교를 자퇴해야 하는 건가 아닌가 진주의 부모는 고민했다. 그러던 중 일이 일어났다. 진주는 오랜만에 학교에 등교했고,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본문 182~184쪽]



질문	나의 답변	짝의 답변
내가 만든 질문		
짝궁이 만든 질문		
내가 만든 질문		
짝궁이 만든 질문		
내가 만든 질문		
짝궁이 만든 질문		

**선생님께** 다른 본문의 내용으로도 하브루타 토론을 해 보면 좋습니다. 질문을 만드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되, 평가와 비교를 통해 논쟁이 일어날 만한 질문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브루타 토론 시 승패를 위한 경쟁보다는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의 본연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장하는 기고문의 일부이다. 이를 읽고 다음의 물음에 답해 봅시다.

[기고] 학교의 '본연적' 기능은 무엇인가?

###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우리는 흔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교육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학교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들을 교육적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활동 중 '교육'과는 무관한 활동들은 얼마든지 있다.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활동은 교육적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활동이며, 교사들을 특정 보직에 배치하는 활동은 행정적 활동이다. 학교운영위원회나 교무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심의, 결정하는 활동은 정치적 활동과 유사하고, 수업 전후 학생들을 돌보는 활동은 보육활동이지 교육활동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보다 엄격하게는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일 또한 교육활동이라고 하기 어렵다. 교사들이 흔히 말하는 '잡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적 활동이나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중 어떤 활동이 '교육적인 활동'인 것이냐를 엄밀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활동이 교육적인 활동이냐를 논하는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기능들은 어떤 것인가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라이머 (Reimer, 1971)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학교란 교육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교육이 학교에서 표방하고 있는 이념이고 목적이기 때문이다. 학교에 대하여 오늘날까지 본격적인 비판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교육'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사람마다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가 다르면 거기서 하는 일도 다르겠지만, 오늘날의 모든 나라에서 학교들은 그 종류와 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학생을 보호하는 기능(custodial case), 둘째 사회적 역할의 선별기능(social-role selection), 셋째 이론이나 원리 혹은 사상을 주입하는 기능(indoctrination), 넷째 지식과 기술을 개발시킨다고 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교육기능(education)이다." 라이머는 학교는 학생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장래 학생이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일, 즉 사회적 선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사상을 주입시켜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들로 형성해 가는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기능을 맡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우리의 일상적 통념과는 달리 학교의 사회적 선발 기능이나 사회화의 기능 모두 교육의 기능과는 다른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매

기어 상급학교 진학을 돕는 활동은 교육활동이 아니며, 한 사회의 주요 가치나 사상을 주입하여 사회가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활동 역시 교육활동이 아니라는 주장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학교가 수행하는 기능이 어떤 것들인가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그러한 기능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본연적인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에는 별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마이클 영(Michael F. D. Young)의 입장

그러나 라이머와 달리 영은 너무나 간명하게 학교의 본연적 기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식사회에서의 교육의 미래: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급진적 예(The future of education in a knowledge society: The radical case for a subjectbased curriculum, 2010)>라는 논문에서 영은 단도직입적으로 주장한다. 학교의 본연적 기능은 학생들의 '지적 발달'을 도모하는 일이며, 지적 발달을 가장 확실하게 도모하는 방법은 강력한 지식(powerful knowledge)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theoretical knowledge)'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지식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교과(subjects)'라고 본다. 그리하여 학교의 본연적 기능은 강력하고 힘 있는 지식인 이론적 지식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는 교과를 가르쳐 학생들의 지적 발달을 최대도 도모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중략]

마이클 영의 이론은 우선 지식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기본적으로 지식(knowledge)과 경험(experience)을 구분한다. 그리고 지식을 다시 '일상생활적 지식(Everyday life knowledge)'과 '전문가적 지식(Specialist knowledge)'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일상생활적 지식이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맥락에 한정되어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맥락 의존적이며(context-dependent), 실제적이고(practical), 방법 절차적(procedural)인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은 사물의 관계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일반적이며 보편적 명제도 산출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전문가적 지식(전문가의 지식, 혹은 학자의 지식)은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 한정되지 않는 맥락 독립적이며(context-independent), 이론적인(theoretical) 지식이다. 따라서 이 지식은 여러 영역의 사태에 두루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보편적인 명제로 표현될 수 있다.

이 지식은 모든 건전한 판단의 기초로서 기능하며 과학적 지식의 근거가 되고, 새로운 지식 창출의 기초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론적 지식은 모든 의미 있는 새로운 지식 창출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지식이 바로 '강력한 지식', '힘 있는 지식'이 된다. 마이클 영에 의하면 이런 전문가의 이론적 지식은 학교에서의 교수와 학습 과정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획득된다. 이에 반해 일상생활적 지식은 일상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거의 무의식적으로 얻어진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경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지식이다. 지식에 대한 이와 같은 이론에 의거하여 영은 학교의 본연적 기능이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한다. 그의 생각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즉,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구태

여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학교는 가정이나 사회 등 학교 이외의 여타 생활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야 하며,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학생들이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은 바로 특정 대상이나 영역에 대한 전문가의 이론적 지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본연적 기능은 학생들에게 전문가들이 생산해 낸 이론적 지식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물론 학자의 이론적 지식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본연적 임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학자의 이론적 지식을 가르쳐야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지식만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 내며 삶의 복잡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오류가 없는 한 학교의 본연적 기능은 이러한 의미의 이론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격파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그러나 전문가의 이론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본연적 기능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적 지식이 학교 교육에서 무용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는 일상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일상적 지식도 교육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지식은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전문가의 이론적 지식은 학교 교육의 내용이며 목표가 된다. 교사는 이러한 지식을 잘 가르쳐야 하며 학생들은 이러한 지식을 잘 배워야 한다.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이 학교 교육의 본연적인 임무인 것이다. 학교 교육의 내용과 목표가 되는 이러한 지식들은 특정 영역의 학문 공동체에 속하는 전문가들이 집요한 탐구를 통하여 생산해 낸 지적 결과물들로서 가장 믿을 만한 지식의 원천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을 학교 교육이라는 상황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재조직한 것을 마이클 영은 교과(subjects)라고 부르며, 이러한 교과들이 합목적적으로 조직된 체계를 교육 과정(curriculum)이라고 부른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한치원 기자 승인 2016.11.11 10:03

**1. '라이머'와 '마이클 영'이 각각 주장하는 학교의 본연적 기능은 무엇인지 글의 내용을 찾아 요약하시오. (500자 내외)**

---

---

---

---

---

---

---

---

2. 기고문을 바탕으로 현재 본인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봅시다.

영역	수행하고 있는 기능

**선생님께** 학생들이 영역을 설정하기 어려웠다면 기고문의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혹은 자유롭게 학생들이 직접 영역을 찾아 설정하여도 가능합니다. 최대한 기고문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 사회에서는 학교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될지 상상하여 글을 작성해 봅시다. (500자 내외)

---

---

---

---

---

---

---

---



5. 친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래의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그려 봅시다.